

5·18기록관-몽골 국가회복관리위원회 기록물 활용 전시·학술행사 교류협력

광주 방문 상호 양해각서 체결
민주·평화·인권 관련 학술행사
공공서비스 개발 등 공동 추진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몽골 국가회복관리위원회가 기록물 활용 전시와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 교류협력 나눈다.

5·18기록관과 몽골 국가회복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기록관 세미나실에서 기록물을 활용한 전시,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의 협력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사는 흥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과 몽골 살당 오뎡토야(S. ODONTUYA) 국가회복관리위원장(국회 부의장), G. 투굴투르 국가회복관리위원회 사무처장, A. 알탄-오키르(A. Altan-Ochir) 단자라브라 박물관 관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이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민주주의 및 인권 관련 공공 서비스 개발 ▲역사의 역사에 대한 기록물을 활용한 전시 및 교류 ▲민주주의, 인권, 평화 관련 학술행사 공동 개최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등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 살당 오뎡토야 몽골 국가회복관리위원장은 "5·18은 광주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자랑스러운 사건"이라면서 "몽골



5·18기록관과 몽골 국가회복관리위원회 대표들이 지난 24일 기록관 세미나실에서 기록물을 활용한 전시,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의 협력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 민주화에 대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이 있으며, 당시의 기록물을 모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등에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흥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민주와 인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몽골 국가회복관리위원회의 광주 방문을 환영한다"며 "협약

체결을 계기로 다양한 교류활동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몽골 국가회복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협약 체결에 이어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운공희 대주교 전시실과 특별전 '1980년 5월의 단상'을 둘러본 뒤 가상현실(VR) 체험관에서 '택시'와 '열기구' 등을 체험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호출하면 바로온다, 광주 시티투어버스

광주시, 문체부 공모 선정
관광객 호출 맞춤형 운행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 관광교통 개선사업'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수요자 요청으로 움직이는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광주시는 국비 3억원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수요응답형 버스(DRT : Demand Responsive Transport)' 방식으로 시티투어버스를 개선해 운영한다.

수요응답형 시티투어버스는 광주송정역, 광주공항, 유스퀘어터미널 등 교통거점과 양림근대역사 문화마을, 비엔날레전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관광지 3곳을 중심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관광객이 정해진 교통거점 노선에서 호출하면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버스가 운행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광주송정역에서 관광객이 호출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티투어버스가 달려오는 맞춤형 서비스다. 기존 순환형 시티투어버스는 1일 9회(상반기), 1일 3회(하반기) 운행돼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으로 대기시간이 길었지만, 광주시는 수요응답형 시티투어버스가 도입되면 평균 30분 내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영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관광 수요에 맞춰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관광하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여행스토리 공모전 '양림? 아니 힐링!' 대상

'광주 수어스토리' 최우수상

21개 작품 상금 3000만원 시상

제1회 '광주 여행스토리 공모전'에서 양림동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도보여행으로 담아낸 '양림? 아니, 힐링!'(전문부문)이 대상을 수상했다.

26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최근 '2023 광주 여행스토리 공모전'을 열고 현장경연을 통해 솜품, 웹툰, 스토리 등 본선 진출작 11개 작품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전문부문 대상을 차지한 '양림? 아니, 힐링!'은 양림동 평강마을을 시작으로 우일선 선교사사택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 카페와 식당을 적절하게 배치해 관광객이 쉽게 관광할 수 있는 이동 경로를 담아낸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엄마와 딸의 추억 여행이야기를 담은 '광주', 광주과학관-양림동 등 주요 관광지를 수어로 안내한 '광주 수어스토리' 등도 좋은 평가를 받고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형식 제한 없이 다양한 형태의 작품이 경쟁한 일반전에서는 무등산 수박 '푸랭이'를 주인공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풀어낸 '푸랭이와 여름방학' (스토리 부문)이 대상을 차지했다.

이어 오매 깨매 으쳐서 인자와(스토리), 광주광역시, 기억의 도시(웹툰), 광주에서 보내는 휴가(솜품), 설레이는 시작되는 빛깔(동영상)이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광주 어디까지TOP3(솜품), 오매, 양림동(동영상), 광주로 놀러와(동영상)는 각각 우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광주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동영상) ▲나홀로 광주여행 브이로그(동영상) ▲별빛별곡 운율따라(스토리) ▲주먹밥, 연대와 화해의 시간여행(스토리) ▲2023ACC 월드뮤직페스티벌 ▲광주에도 용이 살았다? 영산강을 관광지로 만들려면? (동영상) ▲자미탄-정자와 원림 여행(솜품) ▲도시재생으로 변신한 오월 첫 동네(동영상) ▲맛있는 음식이 세상을 구한다(웹툰) ▲우리가리맘대로 광주여행(스토리) 등은 장려상을 받았다. 광주시는 장려상을 포함한 총 21개 작품에 대해 총상금 3000만원을 수여했다. 최종 수상작은 '광주 여행스토리.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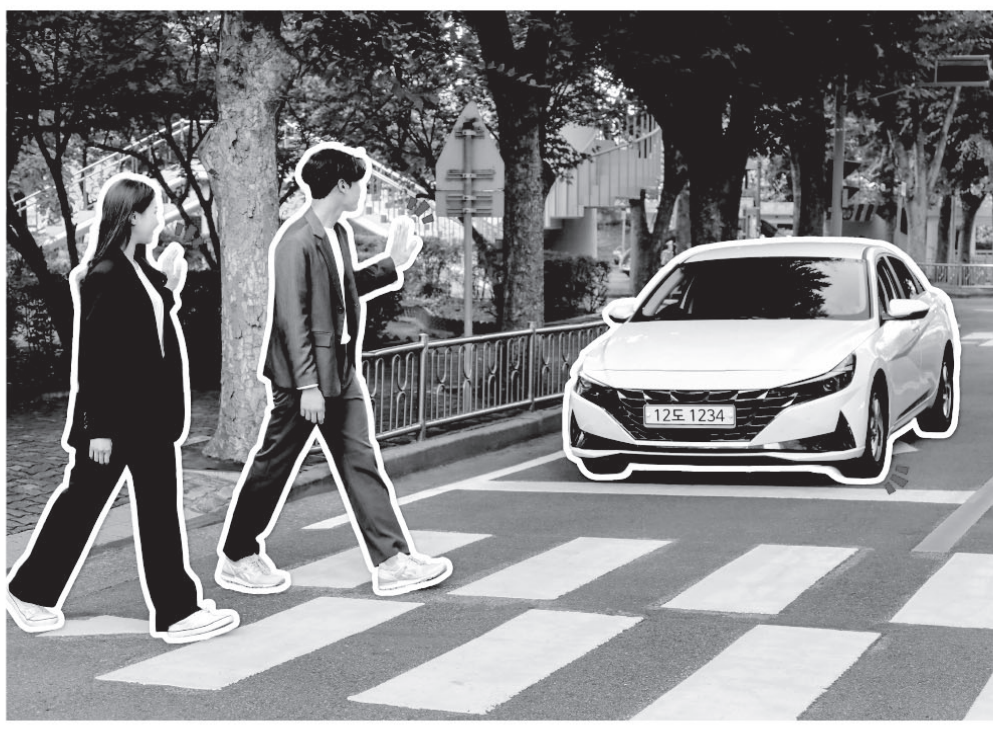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첫 개최한 관광스토리 공모전에 참신한 광주 여행이야기를 한데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행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경취 기회를 확대해 관광정책에 접목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023 광주일보 연중캠페인

건너갈게요! 손으로 말해요!

횡단보도 손짓 캠페인



보행자가 차량을 향해 간단한 손짓을 하면, 운전자와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어요!

"보행자가 손짓하니, 차량 10대 중 9대가 일시정지"

도로교통공단 자체 실험 결과 (각 50회)

손짓 안했을 때 34% 정지!

손짓 했을 때 88% 정지!



'22. 7. 12.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



광주시, 기술직공무원 역량 강화 현장교육

해남 화원~신안 압해 건설현장 체험

광주시는 "지난 24일 기술직공무원과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광주시, 자치구 기술직공무원을 비롯한 공사공단 직원 40여명이 참여했으며, 해남 화원~신안 압해 국도 77호선 건설공사 현장의 터널과 교량 공사 현장을 둘러봤다. 특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협조를 받아 도심에서 접하기 어려운 해상교량 등 대형기반시설 공사현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됐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 같은 현장 견학은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현장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올 상반기에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을 견학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2일에는 시청에서 광주시

와 자치구 기술직 공무원, 공사·공단 임직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소속 광주·전남지역 건설기술인 등 27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기술직공무원 및 건설기술인 직무교육'을 개최했다.

직무교육은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사례(국토안전관리원 최재원) ▲BIM의 이해와 활용(주한국BIM조합 전진우) ▲K-모듈러 공법의 성공사례와 발전과정(현대엔지니어링 김경수)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또 국토안전관리원 주관 '스마트 안전장비 홍보관'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주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1대 1 컨설팅' 등도 운영됐다.

김중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건설기술인의 훈련과 교육은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에 중요한 요소"라면서 "시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건설환경이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탄소중립지원센터, 환경부 우수센터 선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등 호평

광주탄소중립지원센터는 "환경부 주최 '2023년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선정 심사'에서 지역탄소중립지원센터 부문 우수센터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역 탄소중립 선도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전국 17개 지역탄소중립지원센터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심사했으며, 광주와 부산 등 2개 기관이 우수센터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을 광주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행정계획 사전검토,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 등 시정 전반의 탄소중립정책 내재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이행, 도시탄소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정책지원 등이 이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